

‘일당백’의 전투력
남구의 자랑스러운 의료인



“백신·치료제 나오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 유지는 필수”

‘지역 방역사령관’ 남구보건소 허 목 소장

부산 최초 음압텐트 설치 등 선제적 방역 펼쳐
30년 보건현장 지켜… K-워크스루 ‘산파’ 역할

단발머리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두고 ‘대한민국 방역의 아이콘’이라 부른다면, 남구의 방역 사령탑으로 남구보건소 허목 소장(지방기술서기관)을 꼽는 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허 소장의 보건소 집무실 화이트보드에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현황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다. 또 뉴욕타임스 영문판이 매일 그의 책상으로 배달된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전세계의 동향 및 분석이 국내 매체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다. 코로나19 사태는 지구촌 전역이 열거설기 얹혀 있어 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1월 20일 이후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허 소장은 올 초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과거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1월 20일은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날이다. 허 소장은 그 즉시 남구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던 음압텐트를 꺼내 보건소 광장에 설치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음압텐트 운영은 부산 지역에서 남구가 가장 빨랐다. 이런 발 빠른 움직임에 부산시는 “별 것도 아닌데 유난을 댈다”며 탐탁잖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코로나 광풍’에 휩싸였다. 허 소장의 선제적 방역 덕택으로 남구는 4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에 그쳤고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던 지난 3월 허 소장은 남구보건소 직원 5명을 대구 북구보건

소로 ‘파병’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대구 의료진들로부터 재난현장 같은 대구의 참상을 계속 접해 현장의 인력 부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직 등 총 5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자원해 2주간 파견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 이런 감동적인 모습은 전국 매스컴에 부각되었고 타 지역 의료 인력들의 대구행에 불씨가 되었음은 당연지사였다.

그런가 하면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시간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킨 ‘이동형 음압채담부스’와 ‘K-워크스루’ 개발에도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워크스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부터 허 소장은 개발에 필요한 행정 및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랫동안 보건 의료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 소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방역 예산은 결코 헛돈이 아니다”라며 향후 방역에 더 많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 소장은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사태가 종식될 수 없다”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그는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난 1994년 창원시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공공의료와의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를 거쳐 2016년부터 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남구·수영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이자 부산시 및 전국 보건소장협의회회장을 겸하고 있어 보건의료에 24시간이 모자란다.

여전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19로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에 새삼 가슴 뭉클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국민참여형 응원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왼쪽 이미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우리 지역사회를 굳건히 지키는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남구의 의료진 2명을 소개합니다.



남구보건소 허목 소장(오른쪽)과 안여현 의무사무관이 방호복을 입은 채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 맞설 ‘비밀병기’ 작은 역발상에서 시작

‘K-워크스루’ 고안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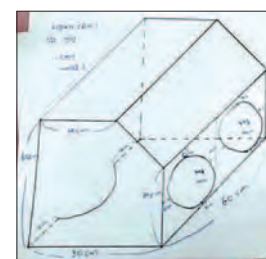
코로나19사태에 있어 ‘드라이브 스루’ 이상의 효과와 기대되는 ‘K-워크스루’는 가장 단순한 발명이 가장 위대한 발명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코로나19 검사에 있어 감염으로부터의 의료진 보호와 신속한 검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를 단박에 해결한 검사장비가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한 안 사무관은 수술실의 감염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현장에서의 감염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안 사무관은 “메르스 사태 이전 의료현장은 감염이나 방역에 관한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남구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음압텐트와 선별진료소를 보면서 안 사무관은 기존 음압텐트와 객담(가래)채취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안 사무관은 그 즉시 종이에 개략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수차례 모의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높인 뒤 제품을

만들어 줄 벤처기업을 수소문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이동형 음압채담부스’로 명명된 검사장비가 탄생했다. 안 사무관은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기에 장비 개발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지원은 모두 남구청이 부담했다.

이동형 음압채담부스의 개념은 이렇다. 감염병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에 오면 의심환자를 음압기



안여현 사무관이 ‘K-워크스루’의 원천 아이디어를 그린 첫 설계도.

었다. ‘이동형 음압채담부스’는 의심환자가 부스 안에 들어가고 의료진이 외부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만 ‘K-워크스루’는 이와 반대로 의료진이 부스 안으로 들어가 외부 통로에 난 구멍을 통해 바깥의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의료진과 환

자의 위치가 바뀌는 역발상으로 의심환자들이 드라이브 스루처럼 부스를 걸어 지나가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이동형 음압채담부스보다 검사 속도와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부스 안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은 양압상태를 유지해 부스 밖 의심환자의 비말이 부스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부스 안을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다. 이 초스피드 워크스루 부스는 글로벌 박스 전문업체인 ㈜고려기연이 안 사무관과 협력 개발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 K-워크스루는 그 효용성이 검증돼 국내 일선 현장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계로 보급돼 지구촌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안 사무관은 부산고려병원과 세홍제병원을 거쳐 2016년부터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계기 의료진 감염 막을 묘안 떠올라 또 한번의 역발상 통해 더 진화된 검사장비 구현

능을 갖춘 밀폐된 투명 검사부스에 들어가게 한 뒤 의료진이 밖에서 두 개의 구멍을 통해 장갑을 밀어 넣어 부스 안의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다. 의료진과 환자와의 접촉이 전혀 없어 2차 감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사 후 내부 공기를 빠르게 소독할 수 있어 검사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한달 남짓만에 안 사무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 ‘K-워크스루’를 만들

행복나무 플라워 HAPPY TREE

◆반려식물·엔테리어식물·플랜테리어
◆다양한 반려식물(다육이), 화분 및 악세사리 판매

한번 구경오세요~

웃음 골목시장 주차장 맞은편 행복나무 플라워
남구 수영로 219번길 30(대연동)

☎ 010-7283-1410

Wedding Fair

둘의 사랑이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무료결혼식

•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1년간) •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 또는 취소된 예비부부를 위해 남구 주민 복지를 위한 무료결혼식을 올려드립니다.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예비부부 및 다가정문화 가정과 남구 주민 누구나 혜택을 받아 보세요~

무료결혼식 포함 내용

- 누리아라 컨벤션 웨딩홀(무료대관)
- 드레스 및 턱시도(무료대여)
- 신부부케, 신랑부토니아(혼주코사지 포함 무료)
- 예식원편사진화영 및 무료 앨범제작
- 행사비용 일체
- 페백실 및 페백의상

• Wedding Fair •

결혼식을 앞둔 남구 지역 예비부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료 결혼식 접수중

•문의전화•
(051)626-9800/010-3803-9095

부산해군회관 내 누리아라웨딩홀 컨벤션홀

고품격 장례문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MOU협약단체에는 **특별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배도성

- 남·수영구주민 **반소 50%할인**
-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반소 무료 (일반실에 한함)
- 장제비 (교인용품)는 5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드립니다.**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광안동) T. (051)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구 동래백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1 (부곡동) T. (051)582-1041 (의령리 병사동)

기장병원 장례식장 T. (051)724-1024

S2 FLOWER 에스플랜팅 디자인
제단장식 전문/근조, 축하화환, 화분
T. (051)627-4880 F. (051)622-1045